

## ※ 17세기 문학, 다채로움과 그 역사적 의미

### I. 17세기 문학 개괄: 중세에서 근대로의 ‘시대 전환기’

- 1) 16세기 후반부터의 인쇄술의 적극 보급과 이로 인한 문자 해독층의 양적 증가로 인해 문학적 경험의 층이 대폭 확대되었다.
- 2) (종교<=>)실무적 글쓰기와 민간구비전승 요소의 문학 영역의 도입으로 문학 장르의 폭이 넓어졌다.
- 3) 산문적 글쓰기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 이른바 <일상 이야기бытовая повесть>가 발달하게 되었다.
- 4) 종종 “민주 풍자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сатира”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되는 풍자성 강한 짧은 이야기들이 등장했다.
- 5) 음절시와 궁정극장용 작품 등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문학의 장르가 근대적 개념의 운문, 산문, 드라마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닦였다.
- 6) 새로운 요소와 장르 등의 도입과 발생으로 문학의 폭이 넓어진 반면, 기존의 장르(특히, 성자전)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 그 깊이도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7) ‘작가성(авторство)’에 대한 각성이 조금씩 생겨나 개성적인 문체가 생겨나기도 했다.
- 8) 폴란드 등을 통해 모스크바 대공국과 러시아에 전해진 번역 문학 중에는 오락적 요소가 매우 강한 글쓰기 종류가 있었으며, 이런 오락적 요소는 그 자체로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민족 스스로의 ‘웃음’에도 자극을 주었다.

### II. 17세기 문학의 방향; 다채로운 발전의 정수

1. 대동란 시기의 사회여론문학 - 세기 초, 정치적 격변기를 증언하는 문학으로서, 무엇보다 당대 역사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인물들의 회고담 또는 승리한 세력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전파하기 위한 대중적 역사 글쓰기  
예: 「영광스런 러시아 제국의 새 이야기」, 「트로이츠키-세르기에프 수도원 포위에 관한 아브라미야 팔리츠인의 이야기」
2. 17세기 역사 서사물 - 새로운 왕조 개창과 세기 초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민족적 정서의 고양에 힘입어 모스크바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치적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  
예: 「모스크바의 시원에 관한 이야기」, 「아조프 이야기」
3. 17세기의 생애전(жития) - 종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가장 유구한 중세 문학의 글쓰기인 ‘성자들의 생애 기록’ 또한 17세기 근대적 변형을 겪게 되니, ‘성자들의 속세의 삶’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또 스스로[아바쿰(Аввакум Петров; 1620~1682)]가 자신의 생을 기록하기도 함.  
예: 「라자레보 마을의 울리아니야 이야기」, 「주사제 아바쿰 자신이 직접 쓴 생애전」

4. 17세기 일상 이야기 - 「슬픔과 불행 이야기」, 「사바 그릇친 이야기」 등에선 종래 문학에서의 주된 등장인물인 성인 또는 공후나 역사적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평범한 주제와 소재, 그리고 배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예: 「슬픔과 불행 이야기」, 「사바 그릇친 이야기」

5. 17세기의 웃음 문학 (민주풍자) - 17세기 문학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정부와 교회, 부자 및 일체의 평민들을 억압하던 기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풍자와 독설, 야유가 특징이다.

6. 17세기 번역 소설 - 서구에서 유행했었던 이른바 ‘악한 소설’인 ‘피카레스크식 소설’의 러시아식 변안이 또한 대중적으로 유행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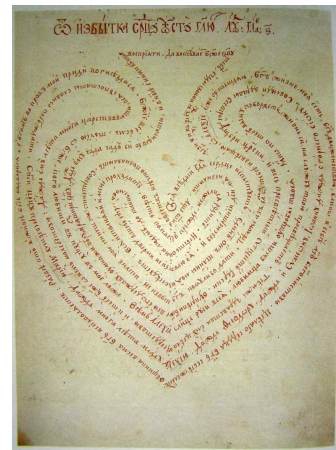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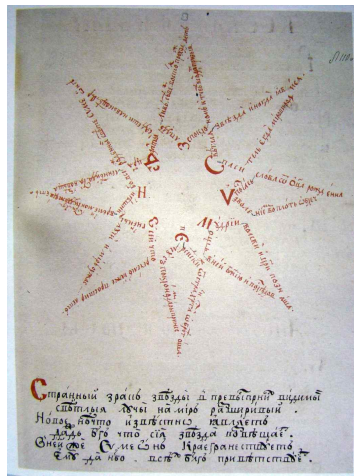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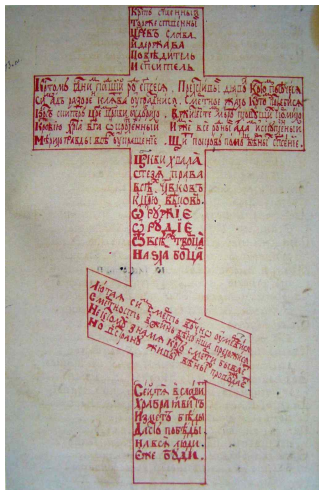
예: 「프롤 스코베예프 이야기」

7. 17세기 러시아 기사 소설 - 중세 서구 기사소설의 러시아판 변안 등이 등장, 인기를 얻기도 했다. 앞의 4.번부터 여기까지를 어찌면 다양한 문학 ‘주인공(герой)’의 등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보바 코롤레비치 이야기」, 「황금 열쇠의 표트르 이야기」

8. 17세기 러시아 ‘시’의 탄생 - 폴란드를 통해 받아들인 근대적 시작법[Вирши]이 처음으로 러시아적인 토양에서 숙성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매우 심대한 형식적인 실험도 시작되었다.

예: 시메온 폴로츠키(Симеон Полоцкий(1629~1680); 폴로츠크 출신의 시메온)의 음절시와 형태시



9. 초기 러시아 극장의 탄생과 극작법의 시작 - 운문과 산문만의 글쓰기 방식에서 다양화되는 시도이자, ‘객관화’와 ‘거리두기’가 그 형식적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크의 시대적 특징인 (궁정) 드라마 장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또한, 어찌면 나중 18세기 신고전주의의 문학성을 예비하는 근대적인 문학 발전의 마지막 방향을 정초한 셈이 되기도 한다. 여기의 8.9.는 산문적 형태로의 조금은 단조로운 글쓰기 형식에서 벗어나 운율을 가지거나 또는 아예 완전히 다른 형식의 글쓰기 등, 문학적 양식 자체의 다양화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II. 17세기 문학의 역사적 의미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는 중세를 그 근간으로 하지만, 중세의 변화를 겪던 시기로 결국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근대로의 변전'을 충실히 이행, 18세기 유럽화의 문화적 토양을 러시아인들이 체화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다진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V. 17세기 문학과 사회를 총괄한 17세기 문화 이해의 또 다른 시도

; 17세기 내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세기 전체의 변전을 '문학'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한 예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